

주일에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주일에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9년 7월 14일 (제1011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겔 럽

인생은 장애물 경기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들아! 사람과 만물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사41:10).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장애물통과 경기다. 살다 보면 뛰어넘기 힘든 정도의 높은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자존심을 버리고 낮아져 엎드리고 기어야 하는 장애물을 만나기도 한다.

그러나 아는가!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상대도 달라지듯이 만물과 만사도 다 마찬가지다. 어디 그뿐이라. 암을 비롯하여 모든 병 또한 마찬가지다.

사람과 만물, 모든 문제를 대하는 내 자세와 태도는 만물과 상대에게 내 믿음을 반영할 수 있는 마음의 거울이다. 만약에 당신의 자세와 태도가 부정적이라면 병, 저주, 가난이란 장애물이 당신에게 위협과 두려움의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기도와 믿음으로 긍정적 자세와 태도를 보여준다면 장애물이 당신 앞에 무릎 꿇는 기적을 맞볼 것이다. 골리앗을 대하는 사울 및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다윗의 태도가 확연히 다른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장애물은 통과하라고 있는 것이지, 걸려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도 했고(He can do it), 그녀도 했는데(She can do it), 왜 나만 못한다고 장애물 앞에서 주저하고 있어야 하는가(Why not me?). 모든 요리에 꼭 필요한 것이 소금이듯이 장애물은 성공자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필수과목이다. 또한! 삶의 맛을 알게 하는 조미료며 역경지수, 믿음의 측정기다.

장애물을 만나거든 담대하게 대하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덤벼라. 골리앗 같은 큰 장애물도 넘어질 것이고, 홍해 같은 장애물도 갈라질 것이다. 당신은 할 수 있다(You can do it!).

기회와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들림 받을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지난 수요일저녁예배에 목사님의 첫 일성이었다.

작금의 뉴스를 도배하는 소식은 처처에 지진과 기상이변이다. 무엇보다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것이다. 예수께서 말세의 징조로 언급하신 사건들이다. “...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마24:7~8). 예수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그 누구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사상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다. 기름이 떨어졌다 하여 자리를 떠난 것이 문제다. 등불을 밝히고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옆에 불어사라도 끝내 그 자리에서 기다렸어야 옳다. 아마도 떨어진 기름을 핑계로 집으로 돌아가 다 포기하고 누워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량을 맞이하려면 신량이 올 때까지 불을 밝히고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올곧게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다.

목사님은 왜 우리 교회가 유별나다는 소리를 들어가며 기도하는지 단적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왜 유별나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여러분을 기도시키는 줄 아세요? 기도하

막연한 기대는 믿음이 아닙니다. 끝까지 갈 수도 없습니다. 내가 장래 교회를 짓겠다, 사업을 하겠다, 정치를 하겠다, 유학을 가겠다, 결혼하겠다, 직장을 얻겠다, 등등 뭔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철저히 준비하여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이 바로 대비하라, 준비하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대비하지 못했기에 일제치하에 노예생활을 한 것입니다. 대비하지 못했기에 6·25 전쟁에 당한 것입니다. 대비하지 못했기에 IMF체제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공부하지 않고, 저축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마24:36).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마24:42~44).

도적같이 오신다 하셨다. 따라서 오직 대치하는 길은 깨어있는 것뿐이다. 그러나 언제까지라는 단서는 없다. 그날이 임할 때까지 깨어있어야 한다. 기름을 준비한 열 처녀는 분명 모두 깨어있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끝내 기다리지 못했

여 불을 환히 밝히면 어느 때라도 신량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도적맞지 않습니다. 영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는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올 사람만 따라오세요. 우리는 그날에 예수님과 한 상에서 떡을 떼며 열두 지파를 심판하는 왕의 자리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준비합니다. 우리는 그날의 면류관이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는 결코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기회도, 미래도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영·혼·육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준비하지 않고 당해놓고는 시대를 원망하고, 국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의 결국입니다.

말세를 이기는 비결은 오직 성령충만입니다. 깨어 기도하여 불을 환히 밝히는 신앙만이 마지막 때를 넉넉히 이기고 그날에 면류관을 받는 벅찬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기도시키는 이유입니다.”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준비가 되어있는가? 예수 재림 때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항상 깨어 기도하는 성령충만한 신앙생활만이 답이다.

한은택 목사

제23회 청소년 연합수련회

중고등부: 7월 29(월)~31일(수), 청년대학부: 8월 1일(목)~3일(토)
문의: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19:1~8)



잘못된 인식의 변화 없이 미래는 없다

잘못된 인식의 변화가 없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잘못된 인식'은 고정관념과 같은 틀인지라 그것을 깨기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릴레오가 지구가 둥글다고 했을 때 많은 자들이 비웃고 비난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다 멀리 나가지 못했습니다. 나가다 벼랑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만일 그 인식이 깨지지 않았다면 신대륙 발견은 없었을 것이고, 오늘날과 같이 세계가 하나 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식이란 안경과 같습니다. 내가 파란 안경을 끼면 만사가 다 파랗게 보입니다. 빨간 안경을 쓰면 다 빨갛게 보이고요. 사물이 초록이든 노랑이든 제대로 보이지 않고 파랗게 보이고 빨갛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어떤 일에 대해, 어떤 상황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나 구역을 인수할 때 사람은 인수인계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이래서 안 좋아.', '저 집사는 이러저러해서 애물 덩어리야.' 하고 전에 있던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정말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형성된 인식은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제 경우가 그런 거 아닙니까? 교계에서 이단이니, 잘못되었다는 한니까 사람들이 그 안경으로 저와 우리 교단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다쳐 선글라스를 끼고 설교하는 사진을 돌려보며 '그렇다더니 정말 이상하네.' 이러는 겁니다. 자고로 병에 술을 담으면 술병이고, 오물을 담으면 오물통이 되는 법입니다. 인식한 대로 말과 행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유튜브 설교영상을 보고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설교를 직접 들어보고, 귀신 쫓는 성령의 역사를 직접 대하고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 우리 교회를 찾는 자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변화가 두려우면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가

성경에 대한 편견에 가까운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저 막연한 신, 타종교에서 생각하는 신적 개념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저의 인식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눅18:27), 이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는 분입니다(롬4:17).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빌4:13). 그분이 주시는 권능으로 귀신을 쫓고 앓은뱅이를 일으키며, 귀

머거리를 듣게 하고, 소경을 보게 하며 각색병을 고치며, 그분의 나라에 대해 증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성경 구절 중 가장 체계 확실하게 박힌 인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16:10)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저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고, 한 사람이 있든 만 명이 있든 최선을 다해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대로 하나님이 큰일을 제가 맡겨 주셔서 지금은 세계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예수 중심 교단을 일구게

되었습니다. 맺 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펍박과 모함을 받으면서 목회를 하면서도 왜 시험이 들지 않는지 몹시 궁금해 합니다. 그건 시험에 대한 저의 인식이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10:13). 하나님은 저를 성장시키기 위해,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 시험(test)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보면 신명기 28장의 '저주'장만 보게 되지만, 긍정적인 생각으로 보면 '축복'장을 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위협이 아니라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율법의 죄 사슬에 자신을 얹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셨건만, 여전히 율법이라는 사슬에 매여 자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찢림

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과 저주와 가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복음의 물결이 넘실대도 나와 무관한 것이 됩니다. 이런 자는 마치 서커스단의 코끼리와 같습니다. 말뚝에서 몇 발만 떼면 전기가 몸에 흐른다는 생각이 각인되어 툭 치면 넘어질 말뚝만 빙빙 돌고 있는 덩치 큰 코끼리 말입니다. 코끼리는 전기가 차단되어도

도망가지 못합니다. 가지고 있던 인식이 깊이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다.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못 살고, 아프고, 췌매여 살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미련하므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잠19:3). 잘못된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인식이란 생각입니다. 곧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사55:8~9) 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전들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처음 천사를 통해 수태될 것이라는 예언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의 말은 이랬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눅1:34).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식입니다. 남녀가 합해야 아이가

만들어지니까요. 그때 천사가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눅1:35)며 마리아의 인식을 바꿔주시니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눅1:38)라고 마리아가 고백했고,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고착된 사고, 교과서적인 사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냥 현재에 만족하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발전이나 성장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바디매오, 2대째 소경인 그가 눈을 뜬 것은 비록 눈도 보이지 않는 소경이지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만 만나면 나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다면 결국 세상에서 뒤처지고 말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받아들이 줄 아는 것이 용기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괜한 고집, 아집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과 인식이 절실한 때입니다. 북한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북한도 인식이 바뀌어야 평화통일이 다가올 것이고, 주변국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경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물 안 개구리의 인식을 버리고, 범세계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세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세요. 만사 부정적인 생각 대신 긍정적이며 생산적인 생각을 주입하세요. 인식의 변화가 운명의 변화를 낳을 것입니다. '생각이 결과라'(렘6:19). 할렐루야!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믿음에는 좌절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시다. 성도의 소망과 긍지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데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성도를 도우실 때 그 역사는 놀라운 것이다. 인간이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할 때 비로소 그분은 움직이신다. 우리가 병(고통)들었을 때 예수께 기도하며 그분의 도움을 구한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건강(고통)이 호전되지 않고 더 악화될 경우가 종종 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상황에 부딪힐 때 매우 낙심하며, 심지어 기도를 포기해버리기도 한다. 오히려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찾아다닌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포기해버리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거부하고 이를 제한해버린 것이다. 우리는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어간다고 할지라도 의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한다. 예수를 갈망하는 우리의 기도가 상달된 후에는 반드시 주님이 손을 펴시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한 청년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위기일발의 순간에 청년은 떨지 않은 물가에 서있는 건장한 사내를 발견하고는 있는 힘을 다해 그에게 달려 달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사내는 물에 빠진 청년

을 확인하고도 상관없다는 듯이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 곧 청년은 기진하여 의식을 잃기 시작했다. 그래도 물가에 있는 사내는 꼼짝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다. 마침내 청년은 정신을 잃고 축 늘어져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때까지 묵묵히 서있기만 하던 사내가 급히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그는 능숙하게 해엄을 치며 청년을 물속에서 끌어내기 시작했다. 잠시 후에 사내의 응급조치로 청년의 정신이 돌아왔다. 숨을 돌린 청년은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야속한 마음을 숨길 수 없어 사내에게 물었다. “왜 진작 저를 구해주지 않았나요?” 그러자 사내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이 발버둥 치는 동안에는 내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당신을 구해낼 수 없소. 왜냐하면 당신은 구하러 들어간 나를 죽기 살기로 붙잡고 늘어질 것이고, 그러면 둘 다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을 때, 보다시피 나는 당신을 큰 곤란을 겪지 않고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노력을 멈추고 온전히 예수를 의지할 때, 주는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 후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낙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 상황을 왜 우리가 상관하려 하는가? 왜 당신이 상관하려 하는가? 그것은 주께서 책임지셔야할 주님의 차례인 것이다.

신기류 목사

깨어있으라

성경에 예수님이 도적에 견주어 비유로 나옵니다. 왜 하필 예수님이 도적에 비유되었을까요? 그것은 도적이 언제 들어들지 모르는 것과 같이 주님의 재림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려고 그러신 것입니다(마24:36).

도적은 어느 날 몇 시에 온다고 경고하지 않습니다. 언제 오는지 알면 대비하고 대처하겠지요. 예수님 역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예비해야겠지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실컷 놀다가 죽기 전에 교회에 나오겠다고요. 실소(失笑)만 나올 뿐입니다. 그럴 수 있다면 알뜰하게 기도 구원을 받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 늘 예비하고 있으라’

고 당부하신 겁니다.

학생이 선생님께 매번 시험 날짜나 묻는다면 선생님이 ‘시험 날짜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해라’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하고 물었더니, ‘그런 것 신경 쓰지 말고 늘 준비하고, 너희에게 분부한 일이나 잘하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7~8).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합니다. 그러나 그 날짜에 연연하지 말고 늘 기도하여 성령 충만으로 불을 밝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일, 복음전파에 힘쓰시다.

예수중심편집실



타락과 원죄 (창세기 3:1~13)

하나님은 인자가 오실 길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으셨고(고전3:9), 인류 최초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의로 정하셨으니 그 언약 안에 들어오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창15:6~18).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믿음이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복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곧 생명이고(요6:63, 요12:49), 생령은 말씀, 곧 영으로 임한 명령을 받아 산다. 하나님의 영으로 명령을 받은 인간은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없으나 만약 그 명령을 거역하면 죄가 되고, 그 죄는 생명을 영원히 상실한다. 육체는 자기의 날까지 임의로 살 수 있지만, 영은 결코 임의로 살지 못하니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의 영이 죽었고 그 영은 하나님 말씀의 생명을 상실했으므로 죄의 값을 피로 갚아야 하는 사망의 빚을 진 것이다(히9:22). 우리는 현실에서 귀신을 다룸으로써 사후의 영혼 존재에 대한 증험을 가진다.

뱀이 에덴에서 생명을 유린할 때, 하와가 먼저 범죄했지만 아담의 죄가 원죄가 되는 것은 아담은 생령의 근본이므로 그의 불순종의 범죄가 근원적 타락이 됨이

다. 하와는 아담에게서 분리되어 나왔으므로 하나님이 되려 한 여자의 사탄적 범죄는 유전되지 않는 하와 자신의 자범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 이후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생령들에게는 아담의 불순종의 죄가 유전된 것이므로 영원한 피의 언약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눅22:20).

원죄란 아담이 지은 죄요, 인류는 단일한 아담의 영과 그 죄를 유전한다. 호박이 넝쿨 벗듯이 아담이라는 영을 유전하는 인류는 모친의 태중에 죄인으로서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한다(시51:4).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피로써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을 때, 아담이 타락하여 범한 원죄를 대속하셨으니 아담 안에서 죽은 인류는 모두 대속 받아 죄에서 해방되었지만(히9:11~22), 이후 각자가 이 사실을 부인하고 그 죄에서 나오지 않으면 아담의 죄로써가 아니라 자신의 불신앙으로 인해 멸망한다(요3:17~18, 16:9). 그러므로 교회 생활의 첫 번 체험은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기

신분을 시인하는 것이요, 이는 생령의 근본이 타락한 그 근원을 가지고 태어났음을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이다.

그러나 자범죄는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 수양이 안 돼서 품행죄를 짓기도 하고, 혹 품행죄를 절제했다 해도 행위만을 정죄하는 율법을 비켜가는 성품죄가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품행 이전의 미움이나 음심도 동일한 범죄로 취급하셨으로써(마5:21~29) 율법을 완성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마5:17). 품행죄와 성품죄는 보혈의 공로 안에서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는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써 거룩케 되었고, 또 성별된 삶을 통해 성화되지만 스스로 ‘나는 성결하다’ 말할 수 없음은 성품에 깔려있는 본죄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때에야 비로소 종식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로 세상에 임하셔서 죄로 인해 멸망할 자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피를 흘리셨으니, 대속하신 이가 값을 지불하고 사들인 것들을 당연히 자기 안에 두셨다(요6:56). 이렇게 자신

을 피로 사신 이의 소유로 인정하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침례를 받음으로써(롬6:1~11) 첫 아담에게 속한 땅의 사람이 죽고 인자, 곧 마지막 아담에게 속한 하늘의 사람으로 다시 나는 증거를 몸과 영에 가지게 된다. 이를 성령이 보증하신다.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는 당연히 자기 안에 두시는 그의 몸이요, 그 몸안으로 불러들인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경영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므로 하나님 아들의 영광과 복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신다(엡1:22~23). 또한 성령님의 모든 권세와 은사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니 장차 영생에 들어갈 신약교회에게 주신 생명권세는 현실에서 사망권세인 음부를 심판한다(마16:18~19).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하나님의 의요, 우리 믿음의 주이시다(마17:5).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12:2).

박덕규 목사

우리를 지키는 꿈의 계시

늘 수요일예배와 금요일예배 전에 한 시간 씩 드리는 기도회와 토요일 저녁기도회 만 나오던 우리 성가대장님이 요즘 매일 저녁 빠지지 않고 기도회에 나오기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쓰였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70년 전에 끌려올 때 예레미야가 한 말이 갑자기 생각난 것처럼, 토요일 저녁기도회 때 얼마 전에 쓴 한 꿈이 생각나면서 “말을 하라, 왜 안 하느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장님이 가방을 들고 어디론가 가려는데 ‘막아라’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가대장님도 기도하는 사람이라 주님의 어떠한 인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가 전하지 못한 채로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갑자기 꿈이 생각나고 ‘말하라’고 하시는 감동이 있어서 내일 예배 후에 말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주일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기도와 결심이 주는 교훈을 깨닫자’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쳐나가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기도로 준비된 사람을 쓰시며, 기도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신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하나님께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벨론 풍속에 젖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 그리고 술을 입에 대지 않았고, 왕궁의 산해진미를 먹지 않았으며, 하루 세 번씩 고향하늘을 향해 기도했다. 목숨을 걸고 이 세 가지를 지켰더니 명석하고 지혜가 넘치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바로 이 말씀이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단1:17).”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루어나가시며, 기도하면 생각나게 하시고 꿈으로 보여주셔서 막을 것은 막고 알 것은 깨닫게 하십니다. 예배 후에 성가대장님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직장을 옮길까 하고 21일 다니엘 작정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의 종의 꿈을 통하

여 답을 얻었다고 감사하며 아주 기뻐했습니다.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찌니라”(단9:23). 설교 중에 한 이 성경 말씀과 같은 일이 실제 우리 안에 일어난 것이 놀라울 뿐이고, 감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예’자도 모르던 청년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조용히 혼자 작정기도까지 하는 것에 주의 종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주님은 미리 아시고 벌써 전에 꿈을 꾸게 하셨으며, 그가 기도를 시작하자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전하게 하셔서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를 탄탄하게 하시고 문제에 답하셨습니다. 이 멋진 주님을 우리 모두가 주일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하심에 놀라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가고 없는 성전에서 눈물로 감사를 외쳤고, 주님을 피부로 느끼며, 덩실덩실 춤을 추며 아무도 없는 성전을 몇 바퀴나 돌았습니다.

서동경 예수중심교회 김경숙 목사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몹시도 사랑하는 어느 권사님이 심방을 요청해 찾아뵙고 기도와 축사를 하는 중에 슬그머니 제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배에 얹습니다. 순간 복수가 차서 뽕뽕하게 팽창된 상태가 느껴집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21일간 오전 금식을 하며 교구 성도님들과 함께 작정기도를 시작했고 어느덧 마지막 날, 깊은 묵상 중 소리 없는 눈물이 강을 이루려는 듯 흘러나옵니다. 문득 저의 깊은 속에서 고백되는 절규, “주님! 너무도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서 아파합니다. 족하오니 제 생명을 취하시고 저 고통 받는 당신의 양 떼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리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곤 깜짝 놀랐습니다. 얼룩송아지 엄마 닭이라고 했던가요? ‘이 한 생명 주님께 바치겠으니 나를 따라오는 양 떼들을 축복해달라’(출32:32, 롬9:3)고 애통하며 절규하던 우리 목사님의 그 기도를 저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심령 안에 가득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고통받는 양 떼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분의 유일무이한 사랑 말입니다. 온 우주 안에 이 은혜로 충만한데 마치 어리석은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 감각이 무뎠습니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7:24)는 사도 바울의 탄식이 결국 제 안에서도 터져 나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우리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의 희생의 사랑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거 같아 마음이 아프고 저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다 주고 가셨는데, 나 같은 죄인 복주시려고 다 이루고 가셨는데,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그 사랑이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부어져 회복의 역사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김정옥 전도사

하계산상집회

8월 5일(월) ~15일(목) 장소: 예수중심기도원 문의: 02. 533. 9191

:: 한라에 핀 사론의 꽃 ::

사랑받은 자의 모습

‘동전의 양면성’이란 말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떼려야 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적용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올바로 서있다면 반드시 열매로 맺게 된다는 것,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동전의 앞면과 같은 것이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동전의 뒷면과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동전의 앞면이라면 동전의 뒷면처럼 나타나야 할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 대학 후배 중, 늘 입버릇처럼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면 연애도, 결혼도 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던 후배가 있다. 이 말은, 본인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생각이 없다는 의미다. 그러던 후배가 자신과 정반대인 사람을 만나 연애라는 걸 하면서 180도 달라졌다. 더 이상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 웃이나 대충 입고 다니는 건 물론 자신이 원하는 것만 고집부리는 일도, 타인보다는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이익을 쫓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다. 심지어 야구의 ‘ㅇ’자로 몰랐던 후배는 야구시즌이 되면 응원하는 팀의 유니폼을 입고 야구장으로 향하기까지 했다. 사회심리학자인 자온스(R. Zajonc)는 함께 사는 부부는 물론 오래 사귄 연인들은 취향만 같아지는 것이 아

니라 얼굴도 점점 닮아가고 심지어 심박수나 호흡주기도 서로 비슷해진다고 했다. 아마 대학 후배도 연애 초반엔 자신의 방식대로, 습관대로 상대를 만났을 것이다. 하지만 사랑받고 또 사랑하면서 상대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고, 상대방의 장점을 본받다 보니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 꼭 닮은 하나가 되는 일, 이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기적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랑이야말로 ‘예수님 닮은 삶’의 핵심이다. 실제로 하나님은 무엇보다 사랑을 강조하셨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13:34~35).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은 교회 출석률도, 성경적 지식도, 자동차 톨미러에 달고 다니는 십자가 모형도 아니다. 가짜 예수가 아닌 진짜 예수를 따른다면 우리 삶의 중심에 ‘사랑’이 흘러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을 위해주는 사랑이다. 누군가에게 콩깍지가 씌었을 때를 생각해보자. 상대방의 입안에 고춧가루가 끼어있어도, 상대방의 뜻이 나와 달

라도, 간혹 상대방이 실망스러운 행동을 해도 무한대로 이해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사랑한다. 문제는 서서히 콩깍지가 걸어지면서 나 자신의 바람과 기대를 강요함으로써 사랑하는 사람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하지 않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과 상관없이 그저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셨다(습3:17). 어쩔 하나님도 눈에 콩깍지가 씌어있지 않았을 땐 이 악물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받아들이는 사랑을 하셨는지도 모르겠다.

“모든 겉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엡 4:2). 서로에게 숨 쉴 틈을 주고,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게 놔주는 것이 사랑이다. 나와 다른 의견을 용납하고, 상대를 변화시킬 책임감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예수님 닮은 사랑이라 생각한다. 이런 사랑 쉽지 않았지만 힘든 선택 위에 또 하나의 힘든 선택, 작은 사랑 위에 또 하나의 작은 사랑을 더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점점 그분을 닮아있지 않을까 싶다. ‘사랑하면 닮는다’는 말처럼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한다.

Dr. 권정미 성도

